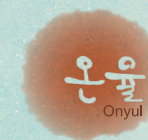


# 2015 율촌 · 온율 공익활동보고서

2015 YULCHON · ONYUL PRO BONO REPORT





2015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

YULCHON  
ONYUL

PRO  
BONO

2015  
REPORT

# CONTENTS

2015 YULCHON-ONYUL PRO BONO REPORT

인사말	04
온을 소개	06
- 울촌-온을의 역사	
- 온을의 비전과 미션	
온을 실행위원회 소개	11

2015 울촌-온을 공익활동	13
- 글로벌 사회공헌	
- 공익법제 개선	
- 성년후견제 지원	
- 교육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	
- 법률문화컨텐츠 개발	
- 봉사 및 공익단체 후원활동	
- 생활법률지원센터	

2015 울촌 더하기 온을	41
----------------	----

협력기관 및 단체	44
-----------	----

2015 공익활동 지표	46
--------------	----

언론보도	52
------	----

울촌·온을의 아름다운 사람들	58
-----------------	----

## YULCHON ONYUL 2015 PRO BONO REPORT



06

온을 소개



38

2015 울촌-온을 공익활동  
- 봉사 및 공익단체 후원활동



43

2015 울촌 더하기 온을  
- 아름다운 울촌인



법무법인(유)  
울촌





## 이사장 인사말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어느덧 2번째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입니다. 지난 2년동안 저는 율촌·온율을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나눔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전문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오면서 또한 그동안 율촌 가족들이 추구해 온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바탕으로 온율은 제3세계와의 교류, 공익법제 개선, 성년후견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율촌과 온율은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 및 이주외국인 지원, 법률 교육, 법률문화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활동을 개척하였습니다. 율촌 가족 및 온율 회원의 참여로 2015년은 기존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사회의 공익활동이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나눔의 가치를 창출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온율의 활동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신성택

## 공익위원장 인사말



율촌은 창립 시부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로펌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온율이 설립되기 전부터 율촌은 공익활동의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에 우리의 재능과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이용하여 율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율촌과 온율이 시도하는 CSV는 아직 초기 단계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과 수단을 고민 중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저희들의 활동을 여러분들께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어울러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언과 깊은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공익위원장 윤세리





YULCHON + ONYUL

Warm Law + Pro Bono

---

온율  
소개

---

# 율촌, 그리고 온율의 발걸음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의 ‘온율(溫律)’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 3월 3일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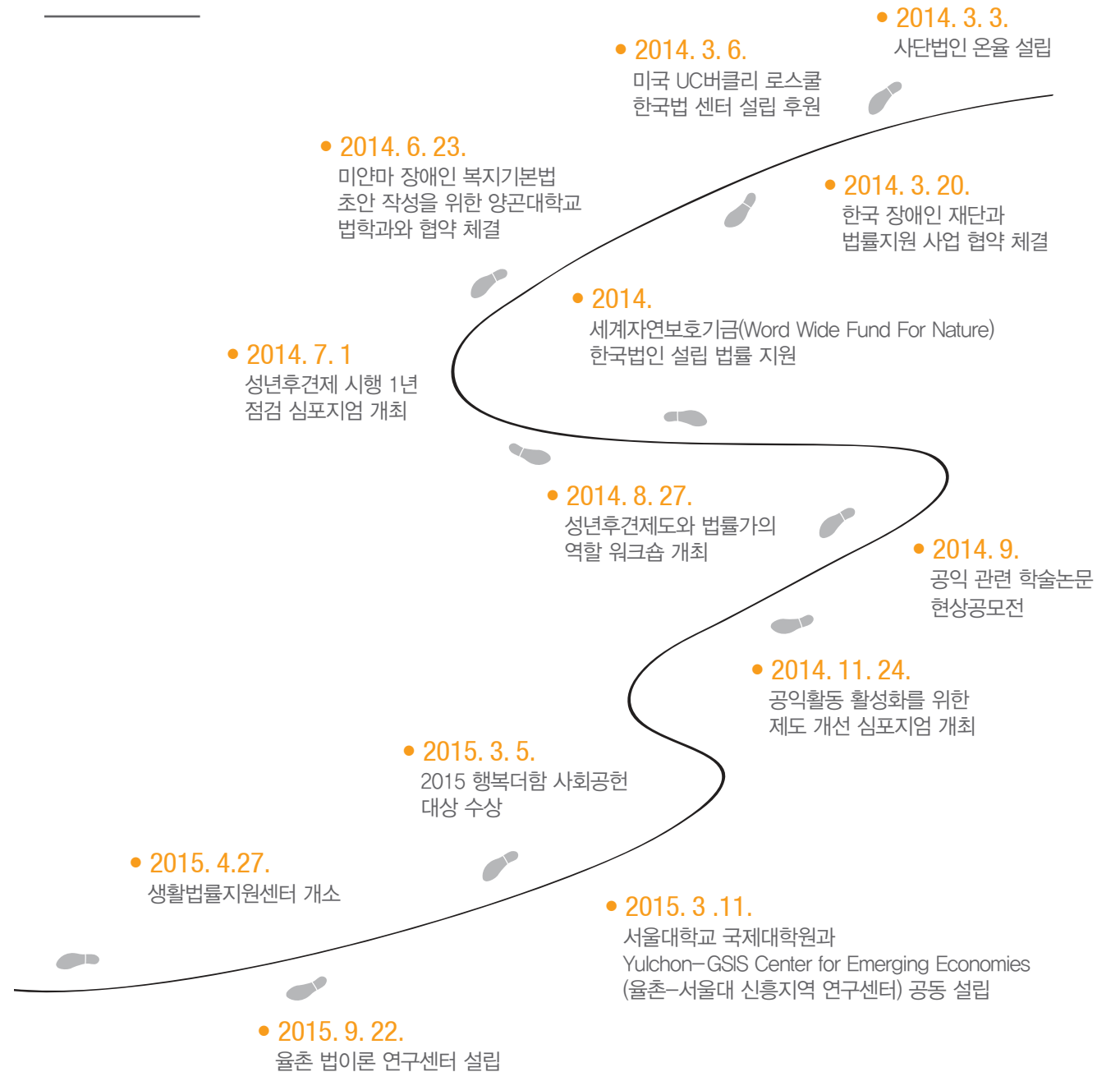
‘온율’은 법률가들이 갖고 있는 법률 지식으로 사회의 취약 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부 및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현실에 맞도록 공익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대,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율촌과 온율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Lawfirm Social Responsibility, LSR)에 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유 가치 창출 및 기여(Creating Shared Value, CSV)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법률가의 관점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법률가들의 온기가 사회 구석 구석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 3. 3. 공익사단법인 온율 출범



## 온울의 비전과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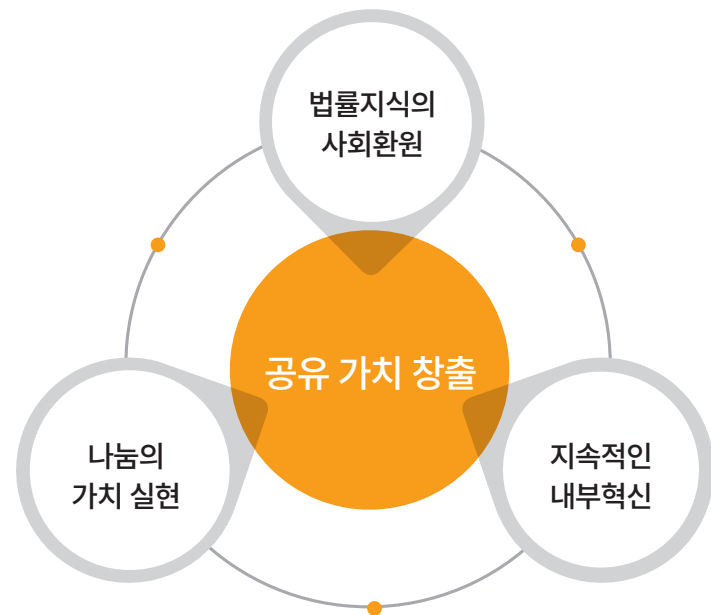
### Vision

#### ‘따뜻한 법’으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온울은 법률가들의 전문 법지식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법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Mission

- 공익 단체와 법률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한 공익 가치 실현
- 공익 법제 연구 활동을 통한 공익 법제의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
-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을 통하여 지적 장애인과 노인도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사회 구현
- 씨드스쿨 후원과 장학사업, 자원봉사를 통한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사회 구현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



## 온울의 실행위원회

### 온울 이사회

이사장: **신성택** / 이사: **강석훈, 강희철, 박은수, 우창록, 윤세리**

### 온울 실행위원회

팀장: **정동수** 고문, **이재욱** 변호사 /  
간사: **이주희** 변호사, **이후록** 수석 전문위원

### 지원팀

강유정, 권성국, 김기정, 김학석, 박현아, 백민우, 안우진, 안채연, 양호인, 윤용희, 윤정, 이지영 이홍배, 이화준, 전환진, 조장혁, 황형준

팀장: **이재원** 변호사 / 간사: **최유미** 변호사

### 공익법제지원팀

김해주, 서경희, 신민호, 윤덕근, 윤지은, 이강만, 이승민(M), 이승용, 정준호, 조성권, 주동진, 주지환

팀장: **윤홍근** 변호사 / 간사: **양선미** 변호사

### 성년후견지원팀

김은진, 맹주한, 양재준, 이강민, 이승목, 이익재, 이희중, 조정익, 표정률, 한지윤, 허경범, 허진용

팀장: **임정준** 고문 / 간사: **윤초롱** 변호사

### 교육지원팀

**씨드스쿨, 청소년교육지원**: 김정현, 김한솔, 설인수, 오은미, 윤용희, 이응문, 정준우, 주우현, 최민경, 최완, 황윤영

**국방전직교육지원**: 정유철, 신원재, 임희동

팀장: **김학석** 변호사 / 간사: **양선미** 변호사

### 범죄피해자지원팀

김남호, 김태균, 류영지, 박남진, 박준일, 신철민, 임항순, 장유정, 정준호

팀장: **임형주** 변호사 / 간사: **김시내, 한수연** 변호사

### 법률문화콘텐츠팀

김왕기, 정우석, 김정현

팀장: **유홍수** 고문, **장영기** 변호사 / 간사: **황문환** 위원, **임경아** 차장

### 봉사활동지원팀

강선주, 김한복, 백현민, 이민영, 이승민(F), 이예나, 조원준, 최재호, 허영

팀장: **박은수** 고문 / 간사: **윤덕근, 이용민** 변호사

### 온울 운영지원팀

김명훈, 김왕기, 김인, 김종연, 류승운, 박은수, 박주영, 서경희, 송상우, 양선미, 정현서





---

2015  
온울의  
활동

---

YULCHON + ONYUL

CSV = Creating Shared Value

# 글로벌 사회공헌

울촌과 온율은 CSV의 확장을 목적으로, 국내에 한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울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흥지역 연구센터의 Country Report 작성

2015년, 울촌은 개발도상국가와의 교류 확대, 상호 협력을 통한 공유 가치 창출 및 개발도상국가의 법제개선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내에 울촌 신흥지역 연구센터(Yulchon - GSIS Center for Emerging Economies, 이하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센터를 통해 울촌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중인 개발도상국 유학생들과 함께 각 국가의 법체계와 관련제도,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 산업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장학생 4명과 외국인투자회사의 노동법 관련 분석, 경제발전 계획, 농업개발과 구조전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방향 등 각 본국의 현황에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여 울촌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Country Report를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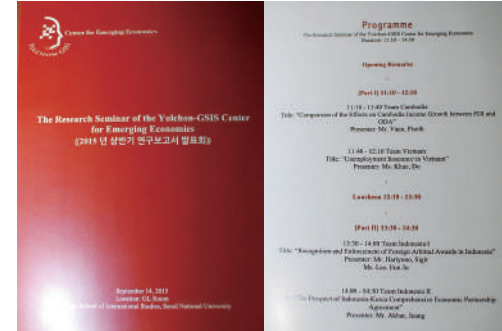


대상국가	2015년도 Country Report 주제
인도네시아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대한 각국의 입장 정리 및 협상 실패 요인 분석을 통한 추후 협상 개선 방향
인도네시아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의 승인 및 집행- 중재 판정에 대한 인도네시아 입법, 사법부의 입장 정리 및 인도네시아의 지향점 제시
베트남	비고용보험 법 제도 및 운영 현황
캄보디아	해외 ODA 및 FDI 투자가 각각 캄보디아에 미친 사회 경제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이렇게 작성된 Country Report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유학생들과 학계 관계자, 율촌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1기 Country Report 발표에 힘을 얻어 현재 2016년 1학기에는 2기 Country Report 발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총 6개 국가의 서울대 국제대학원생과 지도교수, 율촌의 전문가들이 함께 자료들을 분석, 주제를

발굴하여, 각 국가의 외국인투자회사의 노동법 관련 분석, 경제발전 계획, 농업개발과 구조전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정 방향, 정치적 변화(정권 교체)로 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 등 각국 현황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가	주제
에콰아도르	Perspective on PPP laws and investment arbitration in Ecuador in view of the new PPP legislation in the pipeline and recent ICSID's decision rendered in the Oxy case.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회사와 인도네시아 근로자 분쟁 유형 및 현지 노동법에 근거한 효율적인 노무관리 방안
케냐	Keny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 In-Depth Analysis on the Kenya Vision 2030.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농업개발과 구조전환
미얀마	Demography, Ethnicity and Out-migration in Myanmar, 1995-2000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s Strategic Policies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율촌은 단순한 장학금 지급의 방식이 아닌 연구비 지원 형식으로 신흥지역 유학생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함께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유학생들이 율촌의 전문가와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교류를 쌓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 속에서 한국의 발전 노하우가 다양한 개발도상국에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촌-온윤은 앞으로도 연구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이 귀국 후 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글로벌 사회공헌

### 울촌 신흥지역 연구센터 - 제 1차 특강 세미나 개최

울촌 신흥지역 연구센터에서는 2015년 9월 23일 Darlene Tymo 현 UN 북한 World Food Program 사무소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Nutrition Support to Children and Women in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제1차 특강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촌의 전문가들 그리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많은 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북한의 여성 및 어린이들의 영양부족 실태를 파악,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개발협력정책 과정(DCPP) 장학생 선발

개발협력정책 과정(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이하 ‘DCPP’)은 아프리카, 중남미, 남·동남 아시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치, 외교, 행정, 경제 등 공공정책수립을 중점으로 하는 석사 과정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주개발은행(IDB)이 지원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진행합니다.

울촌은 DCPP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을 선발, 해당 학생들에게 DCPP 과정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흥지역연구센터의 여러 활동들은 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범국가적인 CSV 활동이라고 자신합니다. 온울을 통해 연구 학생들과 서로의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도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더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신흥지역연구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러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법무 지역전문부문 백민우 변호사

### 이주외국인 법률 상담

2015년 10월부터 울촌-온울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이주 외국인 대상의 무료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활동에는 울촌-온울 글로벌사회공헌팀 소속 변호사 및 온울 생활법률지원센터장인 임희동 변호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포함한 KB국민은행의 인적 조직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로펌이 수행할 수 있는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담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추가적인 조사나 관련 기관과의 접촉 등 후속 조치를 통하여 이주 외국인이 겪고 있는 법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담 사례 중 법률적 조력이 절실한 사건에 대해서는 울촌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의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가이드 북 발간

일회적인 법률 상담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법문화의 이해와 한국 사회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외국인들을 위한 생활법률가이드북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이드 북에는 상담활동을 통해 수집한 내용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생활법률 내용 등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평소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회가 닿지 않던 중 온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할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건설 부문 이주희 변호사

## 공익법제 개선

울촌과 온율은 공익활동 및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고민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익활동 및 이익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울촌-온율은 공익활동 및 이익의 사회 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활동 및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울촌 법이론연구센터 운영

울촌은 2015년 9월 22일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울촌 법이론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울촌 법이론연구센터는 한국의 현실과 문화에 초점을 맞춰 기초법 분야를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철학(인식론, 의미론, 윤리학 등), 역사, 정치학(정치철학, 정치제도론 등), 인류학, 사회학 등 다른 학문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해외 법이론 분야 연구기관들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를 시도할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한국의 법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자료로서 외국 법이론 연구, 법이론 고전에 해당하는 저작물들과 새롭게 각광받는 저작물들을 꾸준히 번역하면서 해외 법이론 연구기관과 교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조세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이라는 연구과제로 서울대학교 김도균, 김현섭, 김태호 교수와 울촌의 강석훈, 김근재 변호사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울촌은 법이론연구센터를 통해 학계, 실무가 등의 콜로키움을 형성하여 후학 양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공익법제 개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진행

현재 우리 나라의 총 기부금 및 기부 문화는 미국 등 여러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2015년 온윤은 공익논문 현상 공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조성, 독려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부와 함께 ‘공익신탁법’ 제정 등을 연구해 온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를 선임하여, ‘모금전문가 및 기업에 의한 모금활동의 활성화와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번 연구용역에서 이중기 교수는 모금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법제들을 분석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모금전문가(스스로 모금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상업적참가자(다른 영리사업을 주로 하면서 수익금 일부의 기부광고를 하는 자)의 개념을 도입, 보다 쉬운 모금활동이 가능한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기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정보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합 관할하는 통합공시기관의 설립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2016년 3월, 공익법제지원팀은 이중기 교수의 연구결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이중기 교수의 발표 및 율촌 변호사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구결과를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취해야 할 것인지, 동 연구결과가 기부문화 장려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윤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세미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모금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점검하고 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나갈 것입니다.



“공익법제지원팀은 법률개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와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팀입니다. 제가 가진 법률가로서의 지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익법제지원팀에 지원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법률개정이라 하면 뭔가 거창해보이지만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익법제지원팀에서 활동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온윤의 공익법제지원 활동이 더욱 꽃피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정거래 부문 최유미 변호사



“공익법제지원팀 팀장을 맡아, 공익법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그간 제가 해온 실무 경험을 반영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구 및 논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 법률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무그룹 형사팀 부문 이재원 변호사



# 성년후견 지원

성년후견제는 고령이나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지적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법률생활 및 일상생활을 원만히 누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3년 개정 민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윤촌과 온율은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신장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를 연구하고 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 개최

온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성년후견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윤촌-온율은 법무법인(유) 윤촌, 국회의원 이상민(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김정록(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한국지적장애인지원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

일시: 2015년 7월 1일(수) 14:00 ~ 17:00  
 장소: 서울특별시 중도동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 법무법인(유) 윤촌, 사단법인 온율, 국회의원 이상민(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태(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한국지적장애인지원협회

**초대 말씀**  
 법무법인(유) 윤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7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성년후견제 시행 2년을 맞아 이해와 입법취지가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더 보완하고 증진해야 할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국회에서 해야 할 추가 입법과제와 행정부의 정책개발의지를 점검하여, 지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에 필수적인 성년후견제에 좀더 나은 정착을 꾀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발 표 자** 법무법인(유) 윤촌, 사단법인 온율, 국회의원 이상민(1402)이, 국회의원 김성태(1402)이, 국회의원 최동익(1402)이, 한국지적장애인지원협회

참석할 청탁사는 본개에서 **02-555-0111** 또는 **1224(연호1)번**에 전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z\\_sylaw@yulchon.com](mailto:z_sylaw@yulchon.com))로 발송하여 주시기나, 9:00 온라인 참가신청 **이메일(발표)**을 통해 접수해주실 바랍니다.

(국회연락처로 신청이 오기마일 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회의원회관 4층서 신청문의 접수이메일**을 요청드립니다.)

**일정 안내**

좌장(학원수 교수, 법무법인(유) 윤촌)

2:00 ~ 2: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윤원우 변호사 (법무법인(유)윤촌), 국회의원 이상민(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태(1402)이, 국회의원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2:10 ~ 2:25	발제 1.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김지숙 간사, 서울가정법원
2:25 ~ 2:40	발제 2.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제안, 윤원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윤촌
2:40 ~ 2:45	발제 3. 공공후견사업 시행의 성과 및 향후 과제, 김성태 변호사,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센터 실무책임자
2:45 ~ 2:55	휴식
2:55 ~ 3:40	토론 1. 국민환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40 ~ 4:05	토론 2. 김남일 전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4:05 ~ 4:20	토론 3. 송남영 정책기획실장, 한국지적장애인지원협회
4:20 ~ 4:35	토론 4. 유수진 상임이사, 사회복지법인 생인
4:35 ~ 5:00	자유토론, 통일토론(의정)

**기타 참고사항**

- \* 국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며 강제 변호사 의무 연수 시간 미달 (연수시간 100분)
- \* 연수 접수 확인: 케이나 문양 오후 13:30 ~ 14:00
- \* 참가비: 무료, 주차권 미지급 무용지용 이용 요망
- \* 문의처: 법무법인(유) 윤촌 | 02-555-0111, 5508 | [z\\_sylaw@yulchon.com](mailto:z_sylaw@yulchon.com)

**장소 안내**  
 서울특별시 중도동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연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서울특별시 중도동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연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지숙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촌의 윤원우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센터의 실무 담당하고 있는 김명진 변호사가 '공공후견사업 시행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남일 전문위원, 한국지적장애인지원협회의 송남영 정책기획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Lawissue**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법무법인 윤촌 · 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전용모 기자 | [sislaw@lawissue.co.kr](mailto:sislaw@lawissue.co.kr)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윤촌·사단법인 온율이 7월 1일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로, 재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2년을 맞아 입법취지가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 보완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 또한 국회에서 해야 할 추가 입법과제와 행정부의 정책진행의지를 점검하며 성년후견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촌의 윤원우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제안'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김지숙 판사가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센터 김명진 변호사가 '공공후견사업 시행의 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남일 전문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송남영 정책기획실장(한국지적장애인지원협회), 유수진 상임이사(회복자법인 생인)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국내 변호사 의무 연수 시간(2시간 40분) 인정된다. 발제 및 토론 자료가 담긴 자료집도 제공된다.



# 성년후견 지원

##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 세미나 참여

온울은 2015년 9월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최한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울촌의 박은수 변호사가 세미나의 좌장을 맡고, 울촌-온울 성년후견지원팀의 김은진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을 주제로 한 발제의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 제 1회 아시아 성년후견 학술대회 후원

온울은 한국성년후견학회 등이 주최한 제 1회 아시아 성년후견 학술대회를 후원하고, 울촌의 박은수 변호사, 이희중 변호사, 온울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인 임희동 변호사가 해당 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후기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별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및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진행된 성년후견 학술대회로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제도를 파악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및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우수 기업의 창업자에 대한 성년후견신청이 이루어져 성년후견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년후견제는 2016년으로 시행 3주년을 맞이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 제도나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동시에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마련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앞으로 그 이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제도인바, 온울-울촌 성년후견지원팀은 법제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발 앞서 위 제도의 정착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아갈 계획입니다.”

승무그룹 윤홍근 변호사



# 교육 지원

## 전역예정간부 법률 교육 지원

울촌과 온율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 전역예정군인이 전역 후 보다 쉽게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역(예정)군인에게 필요한 생활법률 강의, 사기 등 범죄의 대상자 예방 조치, 전역예정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개별 법률 상담을 포함하여, 국방전직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역예정자들이 군에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역예정자들은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하여 왔기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전역예정자들은 급격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불의의 피해를 입거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법률을 위반하여 급하게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역예정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변호사로서 조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역예정자들이 사회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부동산건설 부문 신원재 변호사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온율은 따뜻한 법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나눔의 이념 하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온율은 씨드스쿨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및 씨드스쿨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하는 방안 뿐 아니라, 기타 청소년 교육 후원 사업의 확대 및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Seed School

### 씨드스쿨

혼자 방치되어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교류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씨드스쿨(Seed School)’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이사장 : 울촌 우창록 변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멘토링 학교입니다.

씨드스쿨은 현재 덕양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논현중학교, 경서중학교, 북서울중학교 등에서 운영 중이며, 성공적인 공익 교육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율은 씨드스쿨의 핵심가치인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에 공감하여, 씨드스쿨 운영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직접 후원, 외부 후원 유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울촌 가족들 역시 몇몇 학교의 씨드스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교육 지원

## 배움이 있는 식사

울촌 가족들은 씨드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봉사자들을 직접 만나,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씨드스쿨 참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울촌 가족들은 2015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배움이 있는 식사' 행사를 통하여 덕양중학교, 신안중학교, 경서중학교에서 활동한 대학생 봉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각 봉사자들의 구체적인 씨드스쿨 활동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 봉사자들의 고민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배움이 있는 식사 프로그램은 참여한 대학생 봉사자들로부터 "씨드스쿨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해주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있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나눔의 밤

온윤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학봉사단이 개최한 2015년 11월 27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기업인 등을 초청, 씨드스쿨의 동참을 호소하는 '나눔의 밤' 행사를 후원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

울촌-온율은 2015년부터 세계범죄피해자지원협회 세미나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세계범죄피해자지원협회의 서울사무소 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도적인 측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협약 체결 및 기금 후원

2015년 4월 23일 울촌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과 신체, 재산 손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울촌과 온율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그 피해자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율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후원금을 기부하였습니다.



## 사랑의 손잡기 활동 동참

온율은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청소년들이 정서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보다 빠르게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영국 범죄피해자학 전문가 Kathleen O'Hara초청 특강

울촌은 2015년 10월 27일 영국 범죄피해자학 전문가이자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A Grief Like No Other)”의 저자인 Kathleen O'Hara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Kathleen O'hara는 미국 법무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연방 사무소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국 정의 지원회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22년 간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여러 종류의 지원과 상담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개인적인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과정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법률 문화 콘텐츠 개발

울촌과 온율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민주주의 교육의 요체인 점에 착안하여, 올바른 준법 의식을 전파하기 위해 일반인들과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뜻있는 울촌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생성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률교육자료

초중고등생을 대상으로 법치주의를 설명하고 준법 의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자료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울촌과 온율은 초중고등생들에게 법치주의를 교육하는 동시에 ‘법과 사회’ 교과서에 부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교육자료를 만들어 전파하고자 합니다.

### 법률동화 발간

아동기 때부터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법률 동화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편 동화 및 만화책에서 더 나아가 참신하고 재미있는 시리즈물을 기획, 출간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준법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온율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공익웹툰 제작

공익 웹툰 제작의 경우에는 문화 매체로서 웹툰의 친근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법치주의 또는 준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올바르게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재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익웹툰의 경우 웹툰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 공익웹툰 제작을 하기 위한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 봉사 및 후원

울촌-온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및 후원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촌-온율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발굴하여 우리의 정성과 열정, 재능 기부를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시각 장애인과 함께 뛰는 마라톤 대회

온율은 2015년 9월 13일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2015 시각 장애인과 함께 뛰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 및 지원하였습니다. 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온율 가족들 모두 각자 지원한 5km, 10km, 하프코스를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완주하며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율이 지원한 본 마라톤 대회 참가비는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부되어 시각장애인 지원 기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업무에 쫓기다 보니 봉사활동에 참여할 여유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라는 기회가 주어졌고 공익활동 참여 및 최초의 마라톤 참가라는 개인적 목표도 생겨 선뜻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도착한 행사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참가자와 밝은 표정들에 놀랐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음에 제가 더 감동받고 힐링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울촌 및 온율을 통하여 나눔과 베품을 배웠고 향후에도 자주 온율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되길 희망합니다.”

조세그룹 관세팀 권문현 관세사



# 봉사 및 후원

## 태국고아원 Childlife 봉사활동 및 기부

‘Childlife’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인 매사이(Mae Sai)에 위치한 고아원으로, 내전, 자연재해, 가난 등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고아들 100여명의 삶의 터전입니다.

2015년, 율촌의 변호사들은 개인적인 휴가를 이용해 이곳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수행은 물론, 고아원 내 스쿨버스 수리, 정수시설 설치, 각종 생활기기 구입 등을 위한 소정의 온유 기부금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2015년 여름 및 겨울에 태국에 있는 Childlife에 자원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Childlife의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키가 작고 왜소하며 대부분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위험한 흙바닥을 밟고 통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매우 순수했고 아주 작은 것에도 끊임없이 감사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들과의 만남은 저의 마음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어주었고 동시에 물질적인 풍요함 가운데서도 불만을 갖기 쉬웠던 제 생활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기업법무 Corp3팀 주지환 변호사

## 북한 고아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바자회

율촌과 온유는 2015년 4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율촌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회에는 골프채 세트에서부터 찻잔, 약세사리, 손수 만든 이불과 인형까지 다양한 물품이 기증되었습니다. 일부 물품에 한해서는 경매를 실시하였는데 바자회 마감 직전까지도 경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율촌 식구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바자회 수입금 및 모금 성금 전액은 ‘두레마을’에 전달하여 북한 고아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 봉사 및 후원

### 봉사동아리 밀알

밀알은 지역 사회에 대한 울촌의 사랑과 관심을 널리 전하고자 2011년 1월에 구성된 봉사단체로, 현재 41명의 PF 및 14명의 Staff가 밀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밀알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 및 일손을 제공하였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밀알은 장애인 보육기관인 '은혜동산'을 후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매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밀알은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후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은혜동산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와 놀아주거나 어르신과 말벗을 해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삶이 고양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되는 활동이라고 하나 봅니다. 앞으로도 밀알 활동을 통해 저의 내면이 성숙되는 기쁨을 선사하는 봉사활동에 빠져보고 싶습니다”

인사팀 임경아 차장

## 생활법률 지원센터

2015년 4월, 온울은 유료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생활법률상담을 비롯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생활법률지원센터에서는 울촌-온울이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등의 NGO 소속 구성원 혹은 그러한 NGO와 울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울촌-온울의 변호사가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온울은 시민들의 삶을 위한 법률지원을 한 층 확대하여 사회 공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관으로 정년퇴임 후, 꿈꿔왔던 생활법률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전역군인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해 입는 피해들을 알게 된 후, 매월 1회 생활법률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법적 문제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온울 생활법률지원센터 임희동 변호사





YULCHON + ONYUL

Volunteer

---

2015  
윤촌 더하기  
온율

---



# 아름다운 울촌인

## 장애인 고용 실천

울촌은 장애인 고용을 직접 실천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촌은 2010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직무 분석을 시작하여 두 달에 걸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한 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모집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울촌 소속 743명의 상시 근로자 중 16명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울촌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울촌은 법무법인에 맞는 장애인 직무를 발굴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울촌 우창록 대표, 장애인고용 공로 대통령 표창

신지민 기자 shinj@lawtimes.co.kr



우창록(62·사법연수원 6기) 법무법인 울촌 대표변호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15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인고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울촌은 정신 장애와 지적·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청각장애 등 중증장애인 8명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울촌은 이들의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직무를 결정해 주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울촌은 또 기존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청소 업무에 주로 장애인을 고용했으나 복사 업무, 우편물 분류 및 발송, 팩스(Fax) 수신 업무, 사내 우편물 메신저 등의 업무에 장애인 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다.

우 대표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먹고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 활동을 통해 당당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라며 "울촌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과 복지 향상에 힘써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범호랑이 보전 활동

울촌의 조장혁 변호사는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호랑이와 한국 표범을 보존하기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범보전기금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조장혁 변호사를 도와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유학중인 울촌의 이승민, 이태호 변호사는 하버드 대학교 박물관 소재의 한국호랑이 가죽 표본을 측정, 촬영하여 한국범보전기금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된 자료는 (사)한국범보전기금의 연구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작은 음악회

2015년 4월, 1년동안의 온울 활동을 소개하는 총회와 더불어 울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박형규 사원의 훌륭한 기타연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공익단체 지원

단체명	활동	지원내역
 <b>공익법센터 어필</b>	정기후원	소속 변호사 1년치 연봉
 <b>굿네이버스</b>	법률자문 제공	국제구호개발사업 관련 법률서비스
 <b>대한민국교육봉사단</b>	정기/비정기 후원 법률자문 제공	씨드스쿨 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
 <b>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b>	청소년 육성지원 법률자문 제공	탈북청소년 육성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법률자문
 <b>(사) 더멋진세상</b>	비정기후원 법률자문 제공	공익사업 관련 법률서비스
 <b>서울시복지재단</b>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b>세계자연보호기금</b>	무료 법률자문	한국법인 설립과 운영 관련 법률자문
 <b>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b>	법률안 제정 자문 무료 법률상담	공익 목적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각 지회의 독립법인 전환 절차에 대한 자문
 <b>한국장애인재단</b>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b>밝은청소년</b>	비정기후원	

단체명	활동	지원내역
 <b>범죄피해자증상센터</b>	정기후원, 법률자문제공	범죄피해자 정기 후원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b>국방전직교육원</b>	법률자문제공	전역예정군인 교육 및 법률자문제공
 <b>서울독일학원</b>	법률자문제공	각종 법률자문
 <b>Concern Worldwide</b>	법률자문제공	국내 비영리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정관변경 절차 등 법률자문
 <b>National Geographic</b>	법률자문제공	국내 비영리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자문
 <b>French School</b>	법률자문제공	각종 법률자문
 <b>장애인재활협회</b>	법률자문제공	분회 및 지회 정관 개정안 검토 독립법인 전환 관련 계약서 검토
<b>세계국제법협회</b>	정기후원	한국국제법연감 창간 후원
<b>민사법학회</b>	정기후원	울촌 신진학술상 후원
 <b>한국문화예술위원회</b>	비정기후원	광복70주년 시민음악회 후원



| 총 공익활동 시간 |



약 5782 시간

약 5782시간

| 공익활동 현금 환산액 |



약 3,476,421,818 원

|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및 비율 |

공익활동 참여 한국 변호사 :  
141명 + 기타 28명 =

169명



공익활동 참여 비율 : 44.5%  
(총 380명 중 169명)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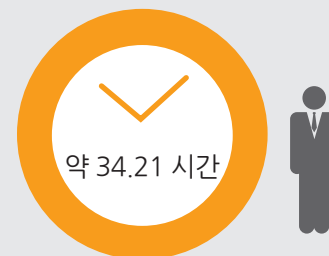
한국 변호사 공익활동 참여 비율 : 60%  
(총 245명 중 14명)

60%



| 공익활동에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 |

약 34.2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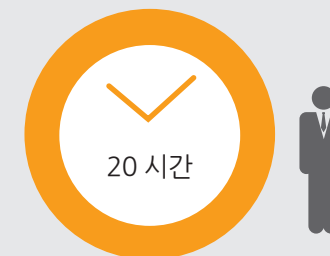
| 한국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 |

24.6시간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 기준시간 |

20시간



# 2015년 통계

2015 정기 회원 기부자 : **159명**  
2015 총 정기 기부 수익금 : **51,280,000원**

(2015. 2. 28. 기준)

최수연	김근재	유예슬	박시중	이정현	김윤태	문준영	강희철
최영진	김기락	유우림	허 범	이홍배	구지혜	박경숙	김철환
최인선	김기영	유홍수	신성택	이화준	길지연	박광빈	최정열
최장석	김능환	윤덕근	손은정	임경아	최선영	박석준	박주봉
최지연	김범준	윤세리	한현숙	임수영	최승동	박영운	김남호
최충인	김선경	윤 용	강성식	장기옥	이선애	박준일	한승혁
최혜선	김선경2	윤용섭	우재형	장영기	이예진	박지은	송상우
Harayama, Michitaka	김세연	윤창욱	김세진	전영준	이미라	박태용	이재훈
한봉희	김순환	윤초롱	서경희	정동수	김정남	박해성	주순식
한수연	김용묵	윤홍근	이승묵	정성무	천숙진	박해식	정태학
한진희	김은정	윤희웅	백현민	정운상	이영란	성소영	김정수
현은숙	김은정1	이경근	최 완	정 원	주우현	송인보	임재연
Fukunaga, Hidetoshi	김정현	이경준	주동진	정준우	강권도	송인태	이수정
황규상	김준형	이석준	윤소연	정현서	강석훈	안응필	김선희
황문환	김태건	이수연	이민영	조성진	강수구	안재호	박성범
황인영	김태현	이수재	김한복	조상욱	곽희경	엄효정	최재혁
황은영	김현정	이영미	석홍동	차태진	김건웅	엄용표	박은수
황정훈	김희경	이자영	김태용	천성현	김경연	오영진	이호진
황형준	나연순	이재욱	설인수	최민석	김규식	우창록	채경수
김규현	유문숙	변현철	이재원	강유정	문재우	소순무	

2015 특별기부자 : **111명**  
2015 총 특별기부액 : **47,992,320원**

강석훈	이호진	박남진	박해성	조장혁	조정철	이가영	이수정3
강수구	이희중	박상태	박해식	신민호	주동진	이경근	이승민1
강희철	임경아	박시중	서경희	신성택	주순식	이경준	이승재
구지혜	임형선	박신애	성민영	신영수	주지환	이도희	이예나
곽상현	장재형	장영기	성수현	신영재	지은경	이미연	이원찬
곽희경	김윤태	장홍조	소순무	안진아	천성현	최규환	이재리
길지연	김은정	전영준	송대준	양성용	윤나래	최용환	이재원
김경연	김 인	정경석	송영은	양호인	윤대회	최유미	이재훈
김남호	김종연	정나리	송인보	엄용표	윤민규	최재혁	이주희
김능환	김준희	정성무	정세훈	엄효정	윤세리	한봉희	이진국
김동수	김진원	박은수	정유철	오은미	윤 용	허 범	홍신애
김성훈	김태건	박은재	정준우	오지철	윤창욱	이민영	황규상
김소정	김태용	박일현	정창영	우창록	윤홍근	이수민	황윤영
이형기	김태현	박정연	정태학	유홍수	윤희웅	이수정	

### 울촌 가족의 특별기부문화

울촌 가족들은 골프 등 각종 행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때 그 기쁨을 나누는 의미로 소정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온울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조사를 겪은 후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온울에 기부함으로써 온울의 사회가치 창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YULCHON + ONYUL

# Commitment

---

2015  
언론보도

---

# 언론보도

법무법인 율촌  
윤홍근 변호사



**율촌/온을 성년후견제 시행2년 점검 심포지엄 개최**  
에이블뉴스 2015. 7. 2.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제안에 대해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연수원 14기)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단기과제로는 1) 후견인이 친족인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배제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범죄 일부에 대한 친족간의 범행은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되어서 결국 고소가 없으면 실제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데, 후견인이 친족인 경우 즉각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2)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 규정 폐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취득이나 임용, 사업허가나 인가의 측면에서 원초적으로 그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법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현실과 법률과의 부조화를 정비하는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누구나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돌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말길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 율촌 윤홍근 변호사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율촌 생활법률지원센터  
개소



**율촌, 서민·사회적 약자 위한 생활법률지원센터 개소**  
법률신문 2015. 05. 11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을(이사장 신성택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덕유빌딩 5층에 서민 법률지원을 위해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센터장에는 구미시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해 화제를 모은 임희동(65·사법연수원 6기·왼쪽 네번째) 변호사가 취임했다.

생활법률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재활협의회 등 온을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11개 사회단체 구성원이나 추천인을 지원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30분에서 11시30분, 오후 1시30분에서 5시30분까지이고, 30분 단위로 예약 상담이 진행된다.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지원 대상자나 단체를 찾아가 도움도 줄 계획이다. 온을은 지난해 3월 공식 출범 이후 온라인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사업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센터 설립으로 오프라인으로도 활동이 확장될 전망이다. 온을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여성, 노인 관련 단체 등과 협약 체결도 꾸준히 늘려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센터는 앞으로 서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지원 활동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율촌 DNA로  
상생의 사회공헌



**"혁신 지향의 율촌 DNA로 상생의 사회공헌"**  
한경비즈니스 2015. 4. 15.

율촌 소속원들의 자발성에 의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따뜻한 '온(溫)에 법 '율(律)'을 써 따뜻한 법률, 따뜻한 율촌을 나타내는 명칭도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됐고,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한 온을의 로고 디자인도 역시 공모로 이뤄졌다.

율촌의 구성원 중 185명이 현재 온을 회원으로 신청해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실행위원회 구성원도 출범 당시 18명이던 것이 76명으로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온을 설립 전부터 율촌 내부에는 나눔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공유돼 있던 상황. 우 대표변호사의 말처럼 공익에 대한 관심과 기여는 율촌의 설립과 운영의 기본 이념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온을은 율촌의 공익 활동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율촌 공익위원회 당시 실행하지 못했던 보다 크리에이티브한 나눔 활동을 시작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온을의 지난 1년은 의미가 있었다. 그 첫째가 바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재무적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흔해 빠진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그로 인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그 목표였다.

사실 더 '티'나게 나눔 활동을 '보여'주려면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다. 이미 온을 이전부터 해 오고 있던 다양한 후원 활동에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을 쏟아 부어서 성과 위주를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상공모니 심포지엄이니 하는 것들이 직접적 나눔과 멀게 느껴질 수 있을 터. 그러나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 연탄을 나르고 김치를 담그는 건 '율촌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시각장애인·발달장애인 무료 법률 상담 지원, 국제 스포츠 행사 법률적 지원,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통한 국제구호 개발사업 지원, 공익법센터 '어필(API)' 소속 변호사 연봉 지원,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꿈나무집' 설립을 위한 세진음악회 후원, 네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후원, 다문화 가정 어린이 지원 등 법률적, 비법률적 공익 활동과 더불어 씨드스쿨 후원, 봉사 동아리 밀알을 통한 후원 활동 등을 꾸준히 해 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따뜻한 법의 힘을 발휘하며 인정을 받아 왔다. 특히 그중에서도 씨드스쿨을 필두로 한 교육 관련 공익 활동들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3월 초에 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교육 나눔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언론보도

### 사회공헌



#### 사회공헌 통해 로펌이 가야 할 길 제시

매일경제 2015. 8. 07.

최근 율촌은 서울대와 손잡고 신흥국의 엘리트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율촌의 공익사단법인인 온율과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공동 설립한 '율촌-GSIS 센터'가 그것이다.

로펌과 대학이 함께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능력 있는 젊은 인재를 돕기에 나섰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러한 시도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의 일환이다. 즉, 종전의 CSR은 기업의 사회 공헌을 이익 창출과 무관한 활동으로 보는 데 반해 CSV는 사회 공헌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로 보는 관점이다.

저마다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과 방향, 희망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이 아니더라도 재능이나 시간 등으로 각자 희망하는 영역에서 기부토록 한 것. 그는 "사회공헌은 각자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진을 찍고 주변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들은 가진 재능 중 남들보다 잘하는 게 법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니 그걸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눠주면 좋겠지요. 남을 돕는 데 동참한다는 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고 말했다.

### 사회공헌



#### 율촌-서울대 '율촌신흥지역연구센터' 공동설립

파이낸셜 뉴스 2015. 3. 11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사단법인 온율은 서울대와 공동으로 동남아 신흥국 출신 학생들을 위한 '율촌신흥지역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센터에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캄보디아 등의 학생 중 일부를 선발해 경제·산업·법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창록 율촌 대표변호사는 "센터 설립을 통해 신흥국 학생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경제, 법제 등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귀국 후 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국내 대형 로펌이 이런 형태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나서 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는 로펌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리면서 생산적인 사회공헌을 하는 새로운 공유가치창출(CSV)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기초법 튼튼히" 율촌-서울대 손잡다

법률 뉴스 2015. 9. 24

법철학, 법정책학, 법사회학, 법사학, 법인류학과 같은 기초법을 우리 현실에 맞는 학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로 로펌과 학계가 손을 잡았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우)은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17동 617호 서암홀에서 '법이론 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법이론 연구센터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에 설치됐으며,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 센터장으로 위촉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기초법 분야 석·박사 과정 연구생 등이 센터에서 연구한다. 율촌 송무 그룹 변호사들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YULCHON + ONYUL

Beautiful People

---

율촌·온율의  
아름다운  
사람들

---



# 울촌·온율의 아름다운 사람들





# 울촌·온율의 아름다운 사람들





# 율촌·온율의 아름다운 사람들





# 2015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

2015 YULCHON·ONYUL PRO BONO REPORT





법무법인(유)  
율촌



- 
-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 Telephone **02 554 5306/02 528 5200**
  - Fax **02 554 3307**
  - Homepage [www.onyul.or.kr](http://www.onyul.or.kr)
  - E-mail [mail@yulchon.com](mailto:mail@yulchon.com)

- 발행일 2016년 3월 31일
  - 발행처 사단법인 온율
  - 편집장 박은수
-